

# 채석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박차

8월까지 2인 현장실사  
내년 최종 결정 예상  
"세계생태도시 브랜드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

부안군은 채석강 등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에 돌입하고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 11월에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최종 송부, 12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정식 인증 신청에 필요한 학술조사와 신규 지질명소 발굴 및 운영상황 자체평가 등을 중점 추진해 신청 요건을 충족해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유네스코 국제적 가치 평가, 유네스코 관계자 현장실사 등 인증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 채석강 등 우수 지질 명소의 국제적 가치 평가와 자체 평가표 등의 서면심의가 올해 4월 까지 진행, 5~8월 사이에는 유네스코 관계자 2인의 현장 실사가 예정됐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서면 심의와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증 여부는 오는 2022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와 함께 오는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을 목표로 현장 평가 대응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기반시설 확충과 군 지질 명소의 국제적 학술까지 발굴 등 차질 없는 준비로 '세계생태도시 부안'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 환경과는 소규모 환경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수거함 설치, 생활폐기물 처리, 악취 저감 등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지질공원 탐방



지질공원 홍보부스 운영

## 변산마실길과 격포 닭이봉 전망대 부안 시그니처로 건축물 재탄생

문준석 팀장이 이끄는 환경정책팀은 부안 변산마실길 시점인 새만금호반에서 송포항을 거쳐 성천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짙레꽃과 데이지꽃 등 꽃동산을 조성해 해안절경과 함께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있으며, 서해안 천혜의 절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격포 닭이봉전망대 개·보수 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해 재탄생된다고 밝혔다.

건축 35년 된 닭이봉 전망대는 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 10억원을 들여 전망대 2층을 변산마실길 및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3층을 휴게공간과 전망대 등으로 조성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고려청자 모형을 모티브로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설치하여 격포의 시그니처 건축물로 탈바꿈한다.

## 소규모 환경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부안군 이한철 환경관리팀장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환경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20년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료하고, 2021년에도 5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2021년 전기자동차 3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1,000대를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5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10대, 저녹스 보일러 교체 1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수거함 설치

양갑진 팀장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지난해 국비 3천만원 지원을 통해 각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올해도 배출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추진 중이며, 또한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가 약 16% 증가한 8억3,300만원을 확보해, 243명(지붕개량 28동 포함)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할 계획도 매년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안군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3월중 각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40여개, 아이스팩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안을 변산면 진서면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간단한 선별작업을 통해 전동시장 상인회 지역



마실길 2코스

업자, 영농조합법인 등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

최훈 환경시설팀장은 부안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2024년 예정)이 얼마 남지 않아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총 388억을 투자, 매립시설(17만㎡), 소각시설(30톤/일), 노후화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20톤/일)을 2023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위도면도 생활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위해 2023년까지 총 37억을 투자하여 매립시설(1,075㎡) 및 소각시설(3톤/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변산마실길에 짙레꽃  
데이지꽃 등 심어  
명품길 조성 나서

학교 등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수거함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올해 악취 제로화 도전도

## 부안군 2021년 악취 제로화 도전

신익재 팀장이 이끄는 환경민원팀에서는 2021년 악취 제로화를 목표로 청정 부안군 이미지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로 열일을 하고 있다.

군은 2020년에 사업장 및 축산시설 233개소를 점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관련법 위반 농가 1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같이 신 팀장은 2021년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에 47개 농가 26억3,500만원을 지원해 축산 악취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악취 방지 활동



악취저감 지원 설명회

##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높은 위상과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높은 품질의 고창 농수축산품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고창 학원관광농장